

1년 남은 여수세계박람회

해 성공 열쇠 시민의 손안에

친절·봉사 실천 '감동 엑스포'로

청소하고 꽃밭 만들고... 4대 운동 적극 참여 여수·전남 국제도시 도약 시민들이 나서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시민들도 자원봉사 등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둘러보는 시민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0일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린 '2012여수세계박람회 D-365' 기념 행사에 참석한 7000여명의 시·도민들은 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여수세계박람회는 100개 국가에서 8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돈(내·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규모 1조 2400억원)을 쓰면서 관련 산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전체 생산유발효과가 12조 2000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효과도 7만 9000여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도시인 여수와 전남을 전 세계에 알려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전남도 등도 '역대 최고 박람회'로 치르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SOC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시·도민들은 박람회 성공 열쇠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대회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난 2005년 아이치박람회(일본)와 지난해 상하이박람회(중국)도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대회의 성패를 가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직위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박람회를 목표로 1만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박람회 성공은 내 손으로'라는 자제로 박람회장운영·교통안전·시설관리·통역·문화예술·홍보기록·행정·전산·편의시설·후생복지 등 9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여수시도 박람회장 밖에서 박람회 기간 중 여수를 찾는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들의 손과 발이 되면서 성공 개최의 첨예 역할을 할 자원봉사자 5000명을 모집, 교통안내소·자원봉사안내소·종합상황실 등에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민간 차원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624명에 이르는

범도민지원협의회를 구성, 각 분야에서 여수박람회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도민들은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여수와 전남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생활 속 운동을 펼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이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집앞 깨끗이 청소하기 ▲자투리땅 꽃밭가꾸기 ▲자가용 차량 타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초질서 지키기 ▲바가지 요금안받기 ▲내가먼저 지

사하기 ▲내가먼저 양보하기 ▲어려운 이웃 결연하기 등 청결·질서·친절·봉사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전남도도 훈훈한 지역 만들기 운동과 남도 좋은 식단 실천운동,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엑스포 시민포럼' 류중구 공동위원장은 "여수박람회는 국가가 주관하지만 여수가 개최장소인 만큼 여수시민이 주인"이라며 박람회에 대한 여수시민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 유치에 적극 나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과학벨트 광주유치 느낌 좋다"

한나라 호남발전특위 기자회견

국민통합위해 꼭 필요...당·정·청에 건의

한나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정운천 위원장과 정용화 위원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 유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호남발전특위는 이날 "광주는 과학기술역량과 지방안정성, 부지확보의 접근성, 정주 여건 등 과학벨트 입지여건에서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라며 "과학벨트 광주유치는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화 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전제 아래 그동안

당과 정부, 청와대에 과학벨트 광주 유치를 수차례 건의했다"라며 "특히 지역을 방문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지역민의 유치 열망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담당비서관을 만나 광주 유치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직접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지난주 임태희 대통령직는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화 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전제 아래 그동안

특히 이날 기자회견이 과학벨트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가 심의를 갖고 5개 후보지로 압축한 시점에 맞춰 이뤄진데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운천 호남발전특위위원장까지 직접 참석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과학벨트 광주 유치가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입지선정을 코앞에 두고 광주 유치 가능성이 커져 자 한나라당이 광주 유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뒷북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요란을 떨기보다는 여권핵심 인사들을 만나 과학벨트 광주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박람회 관람객 수요조사 살펴봤더니...

1048만명 예상... 하루 최대 36만명 몰릴 듯

교통·숙박 등 '통제 불능' 우려...외국인은 다소 줄 듯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이 10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수박람회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데다, 외국인 관람객도 예초 기대에 못미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예상 관람객 1048만명=11일 전남도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원회가 내국인 2500

만명 외국인 500명 등을 대상으로 '2차 관람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람회 기간 내 관람객이 10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위의 예상 인원 80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국내 인구(4월 말 기준 5천59만 4424명)를 고려하면 5명당 1명꼴로 박람회장을 찾게 돼 '대박'이벤트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8월 주말에는 하루 최대 36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극심한 통제 불능' 우려도=문제

는 관람객 증가로 인해 교통·숙박·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보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시장이 들어선 박람회장(25만㎡)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30만명 입장시 박람회장 혼잡도는 1.1(㎡/명)로 극심한 통제 불능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용차로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도 전체의 61.8%로, 하루 평균 2만 대, 최대 7만4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 5월 이뤄진 '1차 수요조사' 때 승용차 이용객(69.4%)에 견줘 김

소했지만 박람회 환승주차장 수용능력(3만1000대)을 초과한다.

이대로라면 7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장으로 입장하는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는 박람회장 내 마련될 화장실·식당·벤치 등 편의시설도 태부족하다. 이미 계획된 식·음료시설(11만 7000㎡)로는 1000만명이 넘는 관람객 식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여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인 관람객 끌어와야=이번 조사결과, 박람회장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42만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조직위가 예초 예상한 55만명에 비해 13만명이나 부족한 수치로, 자칫 '지역 축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밀한 해외 마케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여수선언문 검토회의' 참석

국제박람회기구(BIE)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이 11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김광식 국무총리와 면담 시간을 갖고 박람회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박람회 끝나는 시기에 발표할 '여수선언문 합동 검토회의'에 참석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어 12일 롯데호텔에서 박람회조직위 주최로 열리는 '해양·기술혁신과 창조경영'이라는 국제심포지엄과 13일 '제4차 해양·연안분야 최우수사례(OCBPA·Ocean&Coast Best Practice Area)'와 관련한 국제선정위원회(ISC)에 참석한 뒤 14일 출국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맹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주) 장흥해운 www.jhferry.com
문의전화 1544-8884

내 차로 가는 가장 빠른 제주여행

2011년 7월 2일 오렌지 1호, 2호 동시운항

'만원의 행복' 이벤트

5월 13일 이벤트 예매가 시작됩니다



이벤트 1 오렌지 2호 취항 기념
'먼저 먹는 오렌지가 더 싸다. 만원의 행복한 제주여행'
 승선일 기준 7월 1일~7월 17일까지 오렌지 1, 2호 편도 1만원 판매
 (단, 차량은 정상운임 적용 / 향만세 장흥노력항 1,500원 | 성산항 500원 별도)
*5월 13일 ~ 31일까지 홈페이지 예매자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2 오렌지 1호 취항 1주년 기념 **'오렌지 타고 경품 타고'**
 제주도 특급호텔 무료숙박권, 관광지 무료입장권, 렌터카 무료대여권, 장흥/제주 특산물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5월 13일 ~ 31일까지 이벤트 왕복예매자 대상 추첨지급. 당첨자는 6월 24일 홈페이지 발표 (제세공과금 및 배송비는 본인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